

강풍

순천 순간 최대풍속 30m
광주·여수공항 결항사태

20일은 '곡식이 자라는 데 이로운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곡우(穀雨). 이날 광주에는 새벽 2시36분께 초당 순간 최대풍속 16.3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 완도의 경우 새벽 3시를 기해 강풍경보(초속 21m)가 내려졌으며, 전남지역 해안 대부분에도 강풍주의보(초속 14m)가 발효 중이다. 남해서부 및 서해남부 전해상도 풍랑주의보로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

전남 동부지역에는 이날 오후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30m에 달해 순천시 충현교회 외벽 8m가 붕괴됐다. 광양지역 농가의 하우스 76동(2만7천600평)의 비닐도 바람에 날아가거나 찢어졌다.

분철에 강한 바람이 부는 이유는 한랭전선이 광주·전남지역을 통과하면서 북서쪽의 찬 공기와 남동쪽의 따뜻한 공기가 '끼얹음'을 벌이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순간 최대풍속이 15m를 넘으면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맞바람으로 맞았을 경우 성인도 걷기 힘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광주 극락대교는 순간 최대풍속 30m까지 견딜 수 있다. 가장 높은 양동 금호생명 빌딩은 좌우로 50cm 흔들린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장교(斜張橋)인 진도대교의 내풍(耐風) 한계는 34m다. 태풍 '나비'의 중심부근 최대풍속은 43m이었다. 1905년 영국 해군제독 보퍼트(Beaufort)가 만든 풍력계급에 따르면 초속 28.5~32.6m면 건물에 크게 부서지고 차가 넘어진다.

광주공항의 경우 20일 강풍으로 인해 총 16편 중 광주~서울 및 광주~제주행 대한항공 4편, 여수공항은 항공기 5편이 결항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광주·제주 공항 상공에 초속 30노트(1Knot=14.3m) 이상의 거센 바람이 불었다"며 "바람이 단 몇 초 사이에도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편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비행기는 어떤 경우에 결항될까? 이날 결항된 보잉 737의 경우 옆바람(cross-wind)이 초속 30노트 이상일 때 운항이 불가능하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800m 이하일 때 폭설이 내려 활주로가 결빙될 때는 이·착륙이 제한된다. 활주로 미끄럼 정도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정하는 0.25(브레이크가 제어안될 경우) 이하일 때도 마찬가지다.

전동·변게차 질 때는 기장(機長)이 당시 상황을 판단한 뒤 항공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전남 중·대형 종합병원

중환자·감염 관리 취약

광주·전남 9개 중·대형 종합병원의 절반 이상이 중환자 관리와 감염 관리 부분을 취약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260~500 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79곳에 대해 실시해 20일 발표한 '2005 전국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 9개 중·대형 종합병원 중 7개 병원이 중환자 관리 분야에서 C(취약·50~70점) 등급 이하를 받았다. 감염관리 부문에서는 5개 병원이, 응급의료 부문에서는 3개 병원이 C등급 이하를 받았다. <표>

화순 전남대병원은 전국 최우수

◇'중환자 관리' 및 '감염관리' 취약 = '중환자 관리' 항목에서 C 등급 이하를 받은 병원은 ▲광주 첨단종합 ▲목포 중

앙 ▲여수 성심 ▲해남 병원 등 7곳이다. 감염관리 항목에서는 ▲광주 첨단종합 ▲해남병원 등 5개 병원이 C 등급이었

다. 해남병원은 두 항목 모두에서 50점 미만의 D(미흡·50점 미만) 등급을 받았다. 이들 병원은 근무조별로 간호사 1명이 중환자 4~5명을 관리하고, 중환자실 병상당 세면시설은 5~10 병상 당 1개에 불과했다.

◇화순 전남대병원 1위 = 화순 전남대병원은 ▲진료체계 ▲감염관리 ▲시설관리 ▲영양 ▲수술관리체계 ▲검사 ▲중환자 관리 등 15개 항목에서 A(우수·90점 이상)등급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그러나 ▲인력관리 ▲응급(응급진료 체계·효율성·응급실 시설 수준)의료 부문에선 B(양호·70~90점) 등급을 받았다.

◇병원 수준은 = 광주·전남지역에서

2005년도 의료기관 평가(18개항목)

평가대상병원	우수 (A)	양호 (B)	보통 (C)	미흡 (D)
목포중앙병원	7	8	3	-
목포한국병원	13	5	-	-
무안병원	-	7	6	4
여수성심병원	6	9	3	-
여수전남병원	3	11	4	-
여천전남병원	6	8	4	-
첨단종합병원	1	10	7	-
화순전남대병원	15	2	-	-
해남병원	2	6	6	4

보건복지부 평가 대상에 포함된 병원은 모두 9곳. 400~500병상의 대형병원으로는 목포중앙·목포한국·화순전남대병원, 260~400병상의 중형병원은 광주 첨단종합·여수성심·해남병원 등 6곳이 대상이었다.

화순 전남대병원이 종합 1위에 오르고 목포 한국병원이 13개 부문에서 A항목을 받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목포 중앙병원은 A등급 7개·B등급 8개·C등급 3개를 기록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학부모 독서회 연합 세미나 '인파'

'미래의 광주 책읽는 고을'이라는 주제의 '학부모독서회 연합 세미나'가 2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원로 시인 신경림씨의 특별강연·빛그림 이야기 시연·독서 퀴즈대회 등도 마련됐으며, 초·중·고교의 학부모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7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관련기사 15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현대하이스코사태 해결촉구

시민단체 대표 등 단식 농성

전남 동부지역 시민단체 대표 4명은 20일 오전 8시 순천시 울천면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광양민중연대' 민정기 상임대표는 "노사간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약서의 조속한 이행으로 하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며 "열쇠를 쥐고 있는 하이스코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바라는 마음에서 단식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희성)도 20일 오전 11시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정문에서 광주·전남지역 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전남 순천 공장 정문 농성에 참여한 33명에 대해 조만간 구속 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완도군청 공무원 9명 집단폭행 당해

경찰, 입찰 관련 폭력배 개입 가능성 수사

완도군청 공무원들이 저녁 회식 과정에서 폭력배로 보이는 청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도경찰에 따르면 19일 밤 9시40분

경 완도를 가용리 J노래방 입구에서 완도군청 재무과 이모(40·행정 7급)·곽모(34·기능직 9급)씨 등 공무원 9명이 10여명의 청년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곽씨가 재떨이로 얼굴 등을 맞아 전치 8주 중상을 입었으며, 전남대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다. 공무원들은 ▲재무과 경리계 ▲환경보호과 생활환경계 7~10급 직원들로, 이날 저녁회식을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을 찾았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폭력을 휘두른 청년 중 일부가 완도를 주무대로 활동 중인 폭력조직(C)과 조직원들이었"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우발적인 시비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고 있으나 공무원 중 일부가 군 발주 입찰 등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중시, 관련 업체가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나원침 (6810)



연예2차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지 353부지
문의 (062)366-4220

아파트 주차장 돌며 차량 절도

광주 남부경찰은 20일 광주시내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승용차를 훔치고, 주차된 차량에서 노트북 등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위모(3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빈 집에서 폭죽놀이 하다 집 태워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구들과 집에서 폭죽놀이를 하다 불을 낸 초·중학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모 중학교 1학년 K(14)군 등 5명은 지난 14일 오전 8시20분께 북구 두암동 김모(50)씨 집 2층에 들어가 '분수폭죽'을 터뜨렸는데, 불꽃이 이불에 옮겨 붙어 2층 집내부가 타는 바람에 1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는 것.

○K군 등은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나왔다"고 울먹였는데, 경찰은 이들이 14세 이하 촉법 소년임을 감안, 훈방할 예정.

/이승배기자 lsb54@

지붕·옥상을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주)태양주력개발 TEL:062) 262-9606 / 262-8458

건설 면허의 모든 것 상업/양도/임수
青碩 C&S TEL: 06512-0347-9 FAX: 06512-1067

방수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직접 공사하세요!
드림특수방수제 드림공리야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 수석 합격자 배출!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전국 1위 합격률 1위
5월 1일 신진도 시험
361-8111